

서평

좋은 교사를 꿈꾸다:

한 교사의 기독교적 수업을 향한 평생 분투기

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교사', '참교육'을 꿈꾼다. 그러나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참된 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좋은' 또는 '참된'이라는 말에는 가치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세속적 가치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준거로 좋은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투의 과정'이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한다. 저자가 기독교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나아가고자 하는 완전한 모습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저자의 경험담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학문과 다양한 기독교적 교육모델에 대한 검토, 외

국 기독교 교육기관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올바른 방향을 검증해 나간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탐구이다. 저자가 기독교적 수업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기독교적 수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2부는 더 나은 기독교적 수업을 향한 제안이다. '기독교적'이란 말의 개념 정의 및 기독교적 수업의 구체적 모습, 기독교적 수업을 위한 교사의 위치를 정립한다.

1부를 시작하며 저자는 교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를 이야기하며 기독교적 수업을 화두로 던진다. 저자는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범대에 진학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가난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성품을 길러주며 학생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기도와 찬양



김현정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교육, 평화교육, 교사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더 공부하고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을 통해 신앙을 가꾸어 가는 교사가 되고자 했음을 밝힌다. 기독교인 교사로서 학교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과 책무는 생활지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그동안 기독교적 수업에 대해 두 가지—하나의 지식, 다른 하나는 지식과 삶의 관계에 대한 것—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오해는 많은 기독교인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에 대한 오해. 교사의 역할과 책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성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사실 과학교사인 저자에게 창조론, 진화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었다. 그에게 기독교적 수업은 지식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거나 기독교적 수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식과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기계적 조작 같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저자도 인정한다.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카이퍼는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인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지식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있는 가치나 관점에 따라 지식의 수용 정도와 활용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풀라니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내면에 파편화된 지식이 떠돌게 될 뿐 통합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은 인간 내면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무관할 수 없다. 교사의 세계관, 철학, 종교 등 암묵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지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똑같이 봉사에 대

해 배우고 선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은 불교교리에 따라 살게 된다면 전자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동행하는 것이나 후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된다. 성경적 용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독교인 교사의 관점 즉, 교과서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수업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빈자리가 생긴다.”(41)

둘째, 지식과 삶의 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자는 기독교적 수업에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방식

을 길러주는 것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실제 속에서 이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란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행일치를 전제로 ‘앎’을 교육의 핵심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완성된 인격을 지닌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적 수업은 올바른 앎을 통해 타락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실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인격을 성숙시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에 감사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삶이 포함된다.

1부에서의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시행착오와 탐색을 통해 2부에서는 더 나은 기독교적 수업을 제안한다. ‘기독교적’이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교사의 위상을 정립한다. ‘기독교적’이란 말에는 기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철학과 신학도 녹아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지식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분별하고 왜곡된 지식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지식에 대한 전통적 관점, 쿤, 카이퍼의 견해를 비교하며 ‘기독교적’이라는 의미를 찾아간다. 지식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관찰과 실험 등 객관성, 경험성, 합리성을 보증하는 객관적 지식을 지지한다. 이것은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나 가치나 신념 등의 비객관적 요소는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다. 쿤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이다. 이것은 모든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상대주의에 빠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혼돈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모두 기독교적 지식과 비기독교적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카이퍼의 견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학문의 기초에는 절대 진리로서 성경이 전제가 되나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같은 지식이나 경험이라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카이퍼는 기독교적 지식과 비기독교적 지식을 해석의 차이로 보고 성경을 근거로 전우주적 범주를 포괄한다.

‘기독교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그러하듯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 역시 이분화되지 않는다. 기독교적 수업이란 교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철학에 따라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더라도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실천을 향하고 있다. 알빈 밴스트라에 따르면, “기독교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월드뷰 2014년 3월:8).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중 유치원 과정에서 꿀벌을 주제로 한 단원을 가르치는 예를 보면, 한 아이가 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는 대개 벌의 침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벌과 꿀의 관계에 대한 동화책 내용을 연상하지만, 교사의 안내에 따라 공부한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꿀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벌집 안의 공동체 생활이 지닌 복잡성과 창조 질서에 경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뿐 아니라 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가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사는 기독교적 수업의 핵심이다.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인격적 성숙과 더불어 기독교적 가치관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자는 온전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를 통해 기독교적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식 자체를 전달하거나 성경만 가르치려 하는 이분법적 사고나 지식을 성경과 연결시키려는 기계적 작업, 교사의 역할과 임무를 지식 전달에만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적 수업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수업이란 교사의 올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학생이 타락한 삶을 교정하고 행복한 삶에 다가서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교사 또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본서는 기독교적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유용한 책이다. 기독교적 수업의 본질을 안내하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상황에서 교사로서 기독교 수업을 직접 탐색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미국이나 영국이 종교교육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교육에서 종교적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다.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언급조차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체성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또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모호한 이해로 자기만족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기독교인 교사들에게 이 책은 기독교적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고충에 공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둘째,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성경 용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교사의 신념과 종교 등 암묵적 요소를 통해 기독교적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 영역의 개념은 성스러운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이 타락함으로써 구분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식 또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관점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적 수업의 범주를 확장시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배제와 분리가 아닌 본래 하나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온다.

셋째, 기독교적 수업을 위한 최종 대상을 교사로 두고 있다. 일반 수업에서도 교사의 역량과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는 특히 교사의 성숙된 기

독교적 관점이 기독교적 수업의 여부와 그 질을 결정한다. 교사는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형성하게 도울 뿐 아니라 교실 공동체에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독교적 삶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올바른 교실 공동체의 형성,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학교 및 교육 공동체의 공정한 운영도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 교사의 자질과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언 4:23) 이처럼 교사의 마음을 통한 개혁은 근본적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후 더 이상의 의견 개진 없이, 회의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개개인의 교사가 올바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적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 운영 전반을 맡아 행하는 것도 교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교사는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온전한 기독교적 관점을 성숙시키고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전달하고 이것을 삶 속에 실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소명은 후대를 축복하는 선대의 기도가 될 것이다. ⑥